

수신 : 원장

참조 : 경영본부장, 센터소장, 동북아팀장

<중국경제동향보고 2002-08>

2002. 1. 31

KIEP 북경사무소

중국 민간연구소, 1/4분기 성장률 7% 이하 전망

□ 중국의 민간연구소인 天則經濟研究所와 湘財증권이 금년 1/4분기 경제성장률을 6.8%로 전망, 금년도 정부 목표치인 7~7.5% 달성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.

- 지난해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1/4분기 8.1%, 2/4분기 7.7%, 3/4분기 7.0%, 4/4분기 6.0%로 계속 둔화되어 왔음.
- 天則경제연구소는 1/4분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4.5%, 소비 증가율은 9.6%,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.5%, 수출 및 수입증가율은 각각 6.0%, 9.8%로 예측함.
- <표 1>에서 나타나듯이 금년 1/4분기 고정자산투자증가율 전망치가 작년동기에 비해 2.1%포인트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경제성장률이 낮은 이유는 소비증가율과 수출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.

<표 1> 주요 경제지표 비교(단위: %)

	경제성장률	고정자산투자	소비증가율	물가상승률	수출증가율	수입증가율
01년 1/4분기	8.1	12.4	10.3	0.7	14.7	17.3
02년 1/4분기*	6.8	14.5	9.6	0.5	6.0	9.8

주 1: 소비증가율은 소비재판매총액 증가율임.

2: *는 天則經濟研究所 예측치임.

□ 수출의 경우 미국 경제가 3/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영향은 약 6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출회복에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움.

- 중국 정부도 금년도 수출증가율이 5%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함.¹⁾

□ 따라서 7%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증가율이 10% 이상을 기록해야 할 것임.

- 과거의 재정확대정책이 소비지출을 끌어올리는데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하였음을 감안하면, 소비증대를 위해 통화량 증가를 당초 기대보다 높일 가능성도 있음.²⁾

□ 뿐만 아니라 재정 및 통화정책의 운용이 단기적으로 소비수준을 높이는 데 유효하다 해도 근본적으로 소비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공급과 경제시스템 차원에서의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함.

-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경제활성화를 위해 확대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재정적자 누적은 향후 재정정책 사용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, 금융정책도 실질이자율이 1%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사용 가능한 정책수단이 제한되어 있음.

□ 그러나 중국의 1/4분기 경제성장률이 7% 이하에 그치더라도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7%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
- 이러한 전망은 중국경제 자체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것이기보다는 경제외적인 요소, 즉 ‘성장률 7% 이상’ 실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한 것임.

- 금년 9월 공산당 15기 7중전회에서 중국의 차기 지도부가 선출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음.

1) <중국경제동향보고 2002-06> 참조.

2) <중국경제동향보고 2002-05> 참조